

# 사회복지의 목은지들이여 움직여라

## 라디오스타

한 때 잘 나가던 가수가 지금은 조그만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기자들은 그에게서 나쁜 정보만 캐려한다. 그래도 그 옆엔 매니저가 있다. 자신의 딸 그림엔 아빠가 없는데도 매니저 역할에 열심이다. 방송국을 뛰어다니며 최곤의 복귀를 노린다. 결국 합의금 때문에 영월지방방송국 DJ로 가게 되고, 그들은 지역방송국의 스타가 된다. 지금도 어딘가에는 사회복지의 목은지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한때 사회복지현장에서 최곤과 같이 스타로 유명했던 그들이 지금은 사회복지가 아닐지라도 어디선가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최곤은 지역의 라디오 방송국의 DJ가 되어 우리들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인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목은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목은지들이여, 자신이 태어나 자랐던 고향으로 돌아가라. 아니면 전혀 사회복지로 때문지 않았던 곳으로 들어가라. 그리곤 그곳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사회복지를 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것이 얼마나 멋진 삶인가를 이 영화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다. 아름다운 강산 노래와 함께 영월의 멋진 풍경이 펼쳐진 것처럼 그런 멋진 일들이 사회복지의 목은지들로부터 현실에서 펼쳐질 것을 기대한다.

어떻게 보면 그가 하는 방송은 조금은 달랐다. 원고를 주어도 그대로 읽지 않는다. 후배가수와 싸우기도 하고, 매니저가 방송하고 짜장면 배달시키고 다방에서 커피시켜서 종업원들이 방송하고, 외상값 갚아달



라하고, 집나간 딸이 엄마를 그리워하고, 일자리소개시켜달라하고, 병원환자가 없는 것을 걱정해주고, 비닐하우스 밴드를 지지해주고, 고스톱심판도 봐주고, 시골총각의 사랑도 연결해주고, 아들의 방송을 통해 집나간 아빠를 집으로 돌아오게 한다. 지역주민과 밀착된 방송이다. 그동안의 가수경험을 바탕으로 라디오 방송을 하였을때 주민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밴드문화의 필요성도 강조하며 좀 더 다른 방송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영화니깐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최근에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 운영되고 있다. 대구의 성서라디오공동체도 이제 1년이 되었다고 한다. 외국인노동자들의 방송, 그리고 중증 장애인 엄마들, 좋은 도서관을 만들려는 엄마들이 방송의 주체가 되고 그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현재는 이 지역의 스타가 되었

다. 방송을 통해 중증장애인 엄마들은 장애 통합교육을 실시하던 일반학교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1년동안 방송에 출연한 주민들은 800여명이 넘는다고 한다. 자원봉사자도 90여명이나 된다. 이렇게 주민이 주인이 되는 방송을 실제 진행하고 있으며, 주민이 방송의 스타가 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실제 사회복지 현장을 중심으로 충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무궁무진한 일들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주민이 방송의 주인이 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사회복지프로그램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사회복지가 아닌 곳에서 사회복지적인 요소를 찾아서 다시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다시듣기 팬 사이트도 만들어지고 영월 주민들은 그에게서 싸인을 원한다. 서울에서도 방송을 가져오려하고 기획사 사장도 그를 가요계에 복귀시키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 매니저는 이제 쓸모가 없어지고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간다. 최곤의 복귀를 위해 자신이 걸림돌이 된다면 그를 위해 사라져 준다. 매니저 자신의 가족에게 그렇게 힘들게 한 것은 안타깝지만, 그래도 매니저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 했던 그의 장인 정신에는 박수를 보낸다. 결국 김밥을 팔며 잠시 가족들이 행복해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남편의 허전함을 알고 아내는 남편에게 최곤에게 가라고 한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에게 행복한 것이고 삶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가족들이

이해하고 매니저를 보내준 것이다.

가족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믿어줄 수 있으면 일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힘이 날 수 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삶이 경제적으로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자신이 하고 있는 사회복지 활동이 경제적 가치보다 훌륭하다는 것을 가족들이 이해해 준다면 사회복지활동을 정말로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사회복지사 자신도 자신의 일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을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가족들이 좀 더 빨리 그 일에 대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영화에서처럼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매니저가 가족에게 돌아가서 김밥을 팔아야하는 현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나 복지가 가족들에게 이해를 구하는데 있어서 당당하며 경제적 가치 때문에 사회복지가 외면당하지 않고 사회복지만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보장되기를 바란다.

매니저는 언더그라운드에서 밴드하던 최곤에게 조용필로 만들어준다고 꼬득였다. 한때 잘나가던 가수의 매니저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인기없어진 가수의 곁에 남아서 그를 열심히 도와주고 그가 다시 복귀할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 자기 혼자 빛나는 별은 없다. 밤하늘의 별도 빛을 받아서 빛나는 것이다.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이러한 매니저가 필요하다. 처음 사회복지라는 것에 매력을 느끼게 해준 사람들이 있다. 실습의 슈퍼바이저, 대학의 교수 또는 선배, 자원봉사활동의 현장 사회복지사, 직장체험연수의 슈퍼바이저 등이 될 수 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묵은지처럼 활동하고 있는 선배들이 많다. 후배들에게 멘토가 되어주는 것




도 필요하다. 그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고, 힘들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옆에서 그들을 믿어줄 수 있는 매니저 같은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 그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스타로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배 사회복지사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회복지를 그만두려거나 딜레마에 빠져 고민하고 있는 후배들이 있다. 이들에게 선배들이 먼저 다가가서 이들의 매니저가, 이들의 멘토가 되어준다면 앞으로 라디오 스타가 아닌 사회복지 스타란 영화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사회복지 묵은지들이여 이제는 움직여야 한다. 본인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많다. 물론 예진과 같이 자신들은 사회복지의 스타가 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작은 지역의 라디오 방송국의 DJ가 될 수도 있고, 한명의 사회복지 스타를 만들어내는 매니저가 될 수도 있다.

지금 혹시 사회복지가 아닌 영역에서 일하고 있다고 부끄러워 하지 않아도 된다. 그 안에서 사회복지사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

회복지적인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 자신의 삶에 대해 고민해보고 사회복지 현장으로 나와서 후배들과 멋진 사회복지를 해보는 것을 고려해 주기를 바란다. 어딘가에 묵은지 사회복지 선배를 기다리는 별들이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이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야 한다. 가족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당당하게 열심히 사회복지하는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자. 그렇게 된다면 묵은지들이 진정한 사회복지의 스타가 될 것이다. 자신이 그동안 경험했던 사회복지 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나서야 한다.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의 DJ도 될 수 있고, 사회복지를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움직인다면 주민들은 당신에게 싸인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권혁철  
춘의종합사회복지관